

【서평】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1. Christopher Farrington ed., *Global Change, Civil Society and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Implementing the Political Settlement* (New York: Palgrave Macmillian, 2008).
2. Timothy J. White ed., *Lessons from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Wisconsin: The Univeristy of Wisconsin Press, 2013).

김동진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I. 들어가며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1994년 휴전 선언을 거쳐 마침내 1998년 벨파스트 협정 또는 성금요일 협정이라 불리는 평화적 합의에 도달했다. 북아일랜드 주요 정치 정당, 영국 정부 및 아일랜드 정부가 함께 참여한 이 평화협정은 북아일랜드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으로 대표되는 유럽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 기획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¹⁾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분쟁에 평화적 해결 가

능성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 지역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노벨상 평화위원회도 그 중요성을 감안해 북아일랜드 사회민주노동당(SDLP) 당수 존 흠(John Hume)과 얼스터 연합당(UUP) 당수 데이비드 트림블(David Trimble)을 1998년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협정 이후에도 아일랜드 민족해방군(IRA) 무장해제 문제, 연합주의자 강경파, 왕당주의자들의 반발, 북아일랜드 경찰 개혁문제가 논란을 거듭하면서, 북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혔다. 2006년 세인트 앤드류스 협정 이후 북아일랜드 의회가 재수립되면서 큰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2015년 현재까지도 복지 예산 문제, 전 IRA 출신 지역 활동가의 살해사건으로 불거진 IRA 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1998년 평화협정 이전과 이후의 북아일랜드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 준다. 우선 폭력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지역의 경제적 상황도 상당한 성장세를 나타내 왔다. 무엇보다도 20여 년을 이어온 평화 프로세스 가운데 각 갈등집단은 다시 이전의 고통스런 트러블(Trouble)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²⁾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북아일랜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 분쟁 지역에서 평화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등 몇 지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상당수 지역의 평화 프

1) David Mitchell, *Politics and Peace in Northern Ireland: Political par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5), p.26.

2) Paul Nolan, *The Northern Ireland Peace Monitoring Report* (Belfast: Community Relations Council, 2014) 참조.

로세스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나 좌초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 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2000년 6월 15일, 한반도 남북의 정상인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가지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관계 악화, 북한 핵개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등으로 계속해서 위기를 겪었고, 결국 2000년대 후반 6자회담을 비롯한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협력 사업도 거의 대부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평화구축과 관련해 본 서평문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교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권의 책, 크리스토퍼 파링턴 편저 *Global Change, Civil Society and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와 티모시 화이트 편저 *Lessons from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에 주목하고, 저자들이 북아일랜드 문제를 탐구하며 내어 놓은 연구의 결과물이 다른 분쟁 지역,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II.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성공한 평화 프로세스인가

1998년 협정은 북아일랜드의 갈등집단인 민족주의자(Nationalist), 공화주의자(Republican), 연합주의자(Unionist), 왕당주의자(Royalist)들이 각자의 이권을 보장받으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북아일랜드 의회는 주요 정책 결정 시 어떤 한 집단이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력 공유 및 철저한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북남 각료 협의회(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설립을 통해 북남 관계(North-South Dimension)를 보장함으로써, 민족주

의자, 공화주의자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아일랜드 협의회(British-Irish Council), 정부 간 협의회(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uncil) 설립을 통해 동서 관계(East-West Dimension)를 보장하여, 연합주의자, 왕당주의자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1998년 협정과 관련해 Global Change, Civil Society and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의 저자들은, 국제정치, 국내정치, 시민사회 등 북아일랜드 내외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먼저 이 책의 전반부에서 파링턴, 슈미트(Schmitt), 미한(Meehan)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국제적 차원을 분석한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북아일랜드 내부의 정치집단 외에도 영국, 아일랜드 공화국, 미국, 유럽연합 등 북아일랜드 외부 집단의 역할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먼저 저자들은 1985년 앵글로 아이리쉬 협정(Anglo-Irish Agreement)이 1990년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협정에서 영국은 북아일랜드 주민 다수가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 그리고 아일랜드는 주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북아일랜드가 영국 소속으로 남는 것을 허용할 것에 합의했다. 이후 1998년 협정 당시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의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여 1985년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북아일랜드의 동서 관계를 보장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파링턴은 1998년 협정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 상태의 안정을 유지하길 원하는 영국, 아일랜드의 입장과 더불어, 대다수의 북아일랜드 정치집단들이 이미 이들의 정치적 압력에 내성이 생겨 버렸기 때문이다(pp.25-51).

한편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국제적 맥락에서 큰 규모의 아일랜드 이민 사회를 가진 미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1994년 미 클린턴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신페인당(Sin Fein) 게리 아담스(Gerry Adams)의 미국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1995년에는 조지 미첼(George Mitchell) 상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하면서, 미국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적극적 중재자로 부상했다. 슈미트는 당시 미국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개입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1990년대 변화된 미영 관계를 들고 있다. 서방 진영의 강력한 연대를 필요로 했던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해 우방국 영국의 반발을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국내정치적으로 아일랜드 이민 사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북아일랜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미영 관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변화하게 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치루며 영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고,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슈미트는 이렇게 변화된 미영 관계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당시 영국 블레어(Blair) 총리가 자신이 참여한 북아일랜드 평화 협정의 이행과정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데 반해, 새로 선출된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북아일랜드 문제에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 상당히 부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시기 영국의 협력을 필요로 했던 미국은 영국의 북아일랜드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또한 협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IRA의 무장해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게리 아담스의 미국 방문 이후 조성된 관계들로 인해 미국 이민 사회의 여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공화주의자들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미국 여론 가운데 자신들이 극단적 테러집단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무장해제를 서둘러야만 했다(pp.54-70).

미국과 더불어 유럽연합도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미한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 국경선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영국 또는 아일랜드 어느 한 편의 주권에 귀속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 논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 논쟁이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연합은 1998년의 협정을 단순히 북아일랜드만의 협정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 이정표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협정 이후에도 ITERREG, PEACE 프로그램 등 기금 지원을 통해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에 계속해서 협조하고 있다(pp.91-106).

다음으로 이 책의 후반부 저자들인 테일러(Taylor), 윌슨(Wilson), 파링턴은 국내정치적 상황과 시민사회의 역할 면에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한다. 먼저 테일러는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에 기반을 둔 1998년 협정의 한계를 지적한다. 테일러에 의하면 북아일랜드 의회는 한 갈등 집단의 독주를 막기 위한 다른 집단의 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 정치인들을 집단 사고의 틀로 몰아넣었다. 다시 말해 이들 정치인들은 전체 북아일랜드를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갈등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주민과 시민사회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속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p.183-195).

윌슨도 테일러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북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는 엘리트 정치인들에게는 화려한 성공일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말한다. 윌슨은 특히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협상 과정이 온건파들을 수용하는 방향이 아니라 극

단주의자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전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간극을 심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98년 협정에서 분파주의 극복을 위해 도입되었던 시민포럼(Civic Forum)이 권력유지를 위해 분파주의를 필요로 했던 정치인들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월슨은 북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가 폭력의 발생빈도를 저하시킬 수는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이렇게 갈등 집단의 분파주의와 서로를 향한 앙금과 불만을 그대로 유지, 또는 심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pp. 199-213).

한편 파링턴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 원인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파링턴에 따르면, 인권, 민주주의, 화해운동, 여론조성 등을 통해 북아일랜드 협정 체결에 큰 역할을 한 북아일랜드 시민사회가 이전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시민사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협정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정치 집단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필요로 했다면, 협정 이후에는 정치 집단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집단 사이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변화시켜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역할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파링턴은 자신들의 변화된 역할을 이해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시민사회 집단이 있었던 반면, 약화된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활동이 축소되는 집단이 있었다고 말한다. (pp. 113-13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책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국제적 상황과 국내정치,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맞물려 아직까지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합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갈등지역에

서 살아가는 주민들 간의 평화적 관계회복이 필수적이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협정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폭력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갈등 집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화해하며 평화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아일랜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볼 *Lessons from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는 북아일랜드를 넘어 다른 분쟁 지역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생각해볼만 한 가치가 있는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Ⅲ.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시사점

*Lessons from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의 저자들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시사점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각각의 갈등 집단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현실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헤즐턴(Hazleton)은 1990년대에 이르러 대다수의 민족주의자와 공화주의자는 이미 군사적으로 영국군을 몰아내고 아일랜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 대다수의 연합주의자와 왕당주의자는 민족주의자 공화주의자와 권력을 공유하더라도 북아일랜드를 영국령으로 유지하려는 자신들의 목표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인식 변화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아일랜드와 영국 모두 북아일랜드에 대해 불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을 깨달았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1985년 앵글로 아이리쉬 협정 및 아일랜드의 헌법 개정, 그리고 연합주의자와 왕당주의자를 향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어졌다. 특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 명예로운 속임수(honourable deception)라는 표현을 등장시킬 만큼 평화 협정 체결과 이행에 적극적이었다. (pp. 34-60).

두 번째로 협상 과정은 최대한 포용적이어야 한다. 디슨(Dixon)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사실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여겨지던 신페인당과 IRA라는 극단주의 집단의 입장을 온건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디슨에 의하면 이는 1998년 협정에 이르는 협상 과정에서 이들 정부가 견지한 포용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 정부는 적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 정부의 대화파들은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단순한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술 또는 심지어 블레어와 같이 속임수를 활용해서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대화파의 입장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테러집단과의 대화는 악마와의 대화이며, 이들을 완벽히 굴복시키기 전 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디슨은 이런 신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비현실적 이상주의로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대화만 하는 것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디슨은 압박 또는 대화에 대한 교조적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현실인식에 따라 정말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포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pp. 117-147).

세 번째로 정치적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새로운 해결 방안이 아니

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동의하는가에 좌지우지되어 왔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1998년 협정 이후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은 1973년 서닌데일 합의(Sunningdale Agreement)의 학습부진아(slow learner)를 위한 협정'이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1973년 서닌데일 합의와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은 내용상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1970년대 이언 페이슬리(Iain Paisley)와 같은 북아일랜드의 유력 정치인들은 서닌데일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고, 이에 동의하는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했다. 이들의 극렬한 반대는 결국 서닌데일 합의를 무력화시켰다. 물론 1990년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저항과 반대의견이 있었다. 여전히 각 집단에는 상대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강경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합주의 강경파와 왕당주의 강경파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공화주의 강경파는 무장해제를 지연시켰다. 그러나 당시 협상에 참여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에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와 관련해 행콕(Hancock)은 지역의 평화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그라운드스웰(Groundswell) 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pp.61-93).

네 번째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아일랜드와 같이 식민정책의 여파로 갈등집단 간 경제적 격차가 큰 곳은 더 그러하다. 균형적 경제발전은 상대를 향한 적대감 및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면서 폭력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스칼라토(Scarlatto), 피서(Fissuh), 번(Byrne), 카라리(Karari), 아흐메드(Ahmed)는 북

아일랜드를 위해 조성된 아일랜드 국제기금, 유럽연합 기금들, 그리고 영국정부와 아일랜드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갈등집단 간의 접촉면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저자들은 북아일랜드가 언제까지나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지역 주민들이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pp.198-226).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화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살펴본 책, *Global Change, Civil Society and the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갈등집단 간 협의주의와 권력공유를 통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진 적대감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며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의 지원을 통해 갈등집단의 접촉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계기가 만들어 졌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지원에 대한 공여국의 피로도도 더불어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해 지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지역 민간단체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화이트(White), 오우시악(Owsiak), 클라크(Clarke)는 자생력을 가진 시민사회의 육성을 강조한다. 자생력을 가진 시민사회는 어느 한 분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종교, 문화를 넘어 북아일랜드 전체 지역 주민의 공론장으로서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포용적 공간이어야 한다(pp.227-267).

이 책을 마감하며 화이트는 북아일랜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상호 간 신뢰구축, 사회적 치유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정치적 협상 이후 과정으로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평화 프로

세스에서 정치적 협상과 사회적 치유 및 화해 과정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화이트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평화 프로세스가 어느 한편의 궁극적 목표를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작더라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여러 실천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p. 289-296).

위와 같은 시사점들은 북아일랜드만의 교훈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연구와 실천 과정에서도 위와 유사한 시사점들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가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한 위 두 책의 시도는 한반도의 경우와 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거나,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 자신이 처한 갈등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분명 참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IV. 나오며

한반도와 아일랜드를 비교하는 표현이 담긴 최초의 기록은 한 세기를 넘어 거슬러 올라간다. 1904년 미국인 선교사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는 한국인을 ‘동양의 아일랜드인’이라 비유했다.³⁾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아일랜드와 한반도를 비교하는 표현이 식민지, 분단, 전쟁 등 오랜 갈등과 분쟁의 역사로 인한 사회적 특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3) Lillias Horton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Boston: American Track Society, 1904).

먼저 북아일랜드 갈등과 한반도 갈등은 지역 내부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배, 분단과 같이 외부의 개입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지역 외부의 지정학적 상황은 두 지역 평화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북아일랜드와 한반도 모두 사회경제적 격차라는 쟁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비교의 가치가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는 지역의 통합과정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접촉면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신뢰구축과 화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아일랜드와 한반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적 특징은 전쟁 및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호 불신이다. 그간 한반도와 북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화공존, 권력공유, 협의주의, 연합, 통합, 연방 등 다양한 정치적 해결 방안이 구상 및 실행되었다. 그러나 위 책의 저자들이 북아일랜드의 사례 가운데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도 상호불신은 합리적 해결 방안의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는 위 책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요한 갈통, 존 폴 레더라크와 같은 대표적 평화구축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들 평화학자들은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 왔던 일반 주민들 사이의 상호 신뢰회복과 평화적 관계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북아일랜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

⁴⁾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8);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1996).

호불신이 만연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관계를 맺어가는 작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 헌신을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남북 당국 간 정치적 협상과 더불어, 보다 장기적 계획 아래 남북 주민이 마음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신뢰구축 작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진(Kim, Dong Jin)

현재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겸임교수이며, 평화문화연구원 원장이다.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시드니 대학교에서 평화학을 공부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연구, 1945-1992”로 북한학 박사학위(2010)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 “Aid to the Enemy: Linking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등이 있다.